

검찰, 우병우 수사 이번엔 제대로 할까?

우병우, 작년 11월 '황제 조사' 논란 속 6일 소환 검찰, '잘 것 없다' 정면 돌파 모양새... 결과 '주먹'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타깃으로 꼽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6일 소환한다.

그간 수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사법처리엔 실패하면서 '보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제대로 칼날을 들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현직으로 있던 지난해 7월부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처가가 보유 중인 1300억원대 부동산을 계입업체 넥슨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이후 제기 후 상당 기간 검찰은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권 실제 중 실세로 권력을 쥐

고 있었던 상태였다.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포트라이에 선 건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인 11월6일이었다. 역시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는 검찰청사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 사진이 소환 조사 다음 날 보도되며 극에 달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역시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10월27일 출범 당시부터 우 전 수석이 최순실(61·구 숙기소)씨 국정 개입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주저했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직무유기는 입증이 매우 어려움 혐의"라며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

고, 결국 우 전 수석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는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특검 손에 넘겨졌다.

특검 출범 이후에도 우 전 수석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 종료 후 기자회견과 가진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장기간 내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파견 검사들이 수사를 주저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특검 안팎에서 나온 상태였다.

우 전 수석 수사가 결국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검찰 특유의 '제 식구감싸기'가 발동했다는 이야기다.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 2기는 이 같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팀 구성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썼다. 우 전 수석과 근무 인원이 적은 이근수 부장검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에 수사를 전담시킨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 등이 현직에 있던

우 전 수석을 비롯해 민정수석실 측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일었다. 검찰 요직에 앉은 '우병우 라인'이 견제할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여론이 인 것이다.

이와 관련 특수본 2기는 최근 민정수석실 파견 후 복귀한 검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 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더이상 잘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특검이 수사 대상 논란 끝에 손을 대지 못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 식구'로 볼 수 있는 당시 수사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약 한달동안 모두 47명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며 고강도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도 알렸다. 이를 두고는 검찰이 우 전 수석 혐의 입증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관측도 있다. /뉴시스

이용호 의원, 남원국악예고기숙사 증축 예산 확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4일 남원시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총 13억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 교육의 수원이었던 이 사업은 910㎡ 규모의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요구한 13억7,400만원 전액을 남원국악예술고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했다.

그간 남원국악예술고는 '국악의 성지'라는 남원의 지역적 특색과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타 지역 우수학생들 유치에 노력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부족한 기숙사 공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용호 의원은 "남원국악예술고는 재학생의 70% 이상이 외지에서 국악을 배우기 위해 남원으로 온 학생들"이라며 "이번 '기숙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남원에 국악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방 국악꿈나무들에게 국악예술고 접근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 개월여 동안 교육부 장관 및 차관을 비롯한 담당 국장 및 실무진 등과 면담을 연이어 하며, 남원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상 국악예술 및 전통문화교육 계승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유영철 기자

도의회 교육위, 교육부 폐지 주장 1인 시위 펼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 교육부에서 '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장명식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숙,최인정, 양용모,최영규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학교총량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교육정책을 바꾸고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1인 시위에 참석한 이해숙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에코시티 등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 조건으로 구도심과 농어촌학교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구도심과 신규택지개발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인정 의원도 "교육부가 신규택지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를 무시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하는 상식이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교육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양용모 의원은 OECD 국가 평균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23.6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2.8명임을 지적하며 "학생수 감소 추세에 학급당 학생수 정상화 기회로 삼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고 교육부의 비교육적 처사를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4일 오전 8시부터 세종시 교육부에서 '권력의 시너로 전락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영규 의원도 "교육부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발착형 부패정권을 등에 업고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 조장, 학교총량제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면서 교육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명식 위원장은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위해 정권에 휘둘리

는 교육부는 폐지해야 하며,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연말부터 교육부 폐지 등을 주장하며, 교육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지난 달 30일에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교육 자율성 확보 위해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촉구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문재인, 선대위 구성 착수 상임위장 추미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착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추미애 대표를 확정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필요시 상임공동위원장을 추가로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후보는 당 의원총회에 참석, "우리 당 중앙선대위에 추미애 대표가 직접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문 후보는 대선선거대책위원회를 당 중심, 국민통합형, 가치 조화형 등 세 가지 원칙하에 구성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시도당 선대위원장도 동일한 원칙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필요시 상임공동위원장을 추가로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임공동위원장 인선시, 내부인사보다는 '중도 확장'의 의미를 가진 시민사회 원로 등 외부인사를 영입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이 일단 시도당위원장을 겸직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 지역별 선거운동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뉴시스

유승민 "홍준표와 단일화? 창당 자체 부정하는 것"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4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우리가 바른정당을 시작한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반대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전혀 변한 게 없고, 홍 후보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거듭 말하지만 홍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 단일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격 없는 사람이 때 버리는 것"이라며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중민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제3세대 후보와의 '원상 경선' 가능성에 대해 "어느 누구로부터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들은바가 없다"며 "이것은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과도 상의해야 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2017 MUJU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무주군
주관: 전북도체육회, 무주군체육회
후원: 한국타권도협회, 대한체육회, KFA, KPNP, Kwangju Bank, JB Woori Capital, ASIANA AIRLINES